

# 추석 지나고 더 나빠진 지지율...국정운영 비상등

### 긍정평가도 43.8% 최저치...리얼미터 여론조사



‘조국 사태’로 흔들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9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흔히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추석 명절 이후 지지율이 더 악화되는 기류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3.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매우 잘 못함’ 41.1%를 포함해 53.0%로 나와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성인 2007명 대상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6.1%,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 70%·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 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이번 53%의 문 대통령 부정평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반응한 이날 여론조사 수치를 비슷하게 나와 주목 받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조 장관 임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말한 여론은 과반 이상인 55.5%로 나왔다. (지난 18일 성인 1만2045명과 접촉해 최종 504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 4.2%, 조사 방식은 앞선 조사와 같음)

실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9일 이후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조사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4%를 기록했다. (성인 2504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4.8%, 조사 방식은 앞선 조사와 같음)

이후 지지율은 지명 후 3주 내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45.7%에 머물렀다. (성인 1503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 5.1%, 조사 방식은 앞선 조사와 같음)

문 대통령 역시 이러한 민심을 고려한 듯 앞서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 이례적으로 속고 모드에 돌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장고는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일 바로 다음날, 대부분의 인사들을 곧바로 임명했던 것과는 종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이러한 신중한 임명 기류에 영향을 받은 듯 조 장관 임명 직전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결국 임명 후 약 열흘만에 역대 최저 지지율을 갱신하게 됐다.

이날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문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에도 계속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측은 전날(18일) 뉴스1과 통화에서도 검찰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데 대해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대신 향후 민생과 외교 안보에 더욱 집중하는 국정 운영을 펼쳐,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청와대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직접 브리핑으로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오는 22일부터 3박5일 간 제7차 유엔총회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

## 이해찬, 중진회의서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뼈있는 농담

### 현역 의원 ‘총선 물갈이론’으로 뒤숭숭한 시점 관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출몰이 뒤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총선 물갈이설’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신뢰도가 2.3%라는데 국회의원 300명 가운

대 6~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하는 국회의 모습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지도부를 비롯, 6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석현 의원, 5선 원혜영·이종걸 의원, 4선의 김진표·안민석·설윤·조정식·강창일·송영길·최재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 신뢰도가 거의 팔지에 가깝다”며 “어떤 직업, 어떤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참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의 기관인데 국민의 신뢰를 못하는 것은 큰 문제로, 오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하늘이 두 쪽나도 국회가 열려야 할 시간에는 열리고, 합의되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가 열려 법과 필요 정책들을 제때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어겼을때 스스로 페널티를 지불할 것인지 강제장치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를 다 열어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상시국회제도를 만들고 불충족 의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들,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경험이 있는 중진 의견을 받고 의원총회를 통해 힘 있게 임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 데 대해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청문회도 정쟁, 예산도 정쟁을 하니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입법을 해서 일을 안하면 그만큼 페널티가 뒤따르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 박지원 “DJ·YS도 사법개혁 성공 못해...조국이 했으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면서도 업무 성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을 예방해 “수사 때문에 많이 부담이 가지만 대응할 수도, 반응을 할 수

도 없어서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업무에 충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제가 하고자 하는 길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제가 알기알부할 시간도 아니고 관여,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수사는 수사고, 법무부 업무는 업무라서 마음이 무겁지만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DJ)·김영삼(YS) 전 대통령도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문제인정

부에서 조 장관이 하셨으면 하는 간절함 바랍이 있다”고 기원했다.

박 의원은 또 “조 장관 임명후 더불어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라고 하고 장관도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수사를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외교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조국 피로증이 생겼다”며 “이는 절대 무시해선 안되고 국민 생각이 중요하기에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 등을 잘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3차대 구축을 위한 모인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감했다. 다만 최근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칙의 안전 보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령	고소득층	중산층	3분위	4분위	1분위
1.1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